



‘4분의 황홀경’... 꿈의 200점 넘다

지구촌 흥린 ‘명품 점프’ 207.71 대기록
세계 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사상 최초



김연아(19·고려대)가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200점을 돌파하면서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 진정한 ‘피겨퀸’의 반열에 올랐다.

김연아는 29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1.59점을 얻어 쇼트 프로그램(76.12점) 점수를 합쳐 총점 207.7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연아의 점수는 지난 2006년 12월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서 아사다 마오(일본)가 세웠던 여자 싱글 총점 기존 최고점(199.52점)을 무려 8.19점이나 끌어올린 대기록이다.

특히 김연아는 2002-2003 시즌부터 기존 ‘6점 체점제’를 대신해 도입된 신체점방식(뉴저지시스템)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200점대를 돌파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한 차례 점프 실수가 아쉬웠지만 뛰어난 점프 능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관객을 압도한 경기였다.

마지막조 4번째 연기자로 나선 김연아는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9.50점)를 완벽하게 뛰여 0.4점의 가산점을 챙겼고, 연이어 이나바우어에 이은 더블 악셀까지 안전하게 착지해 기세를 올렸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8.8점)에서도 1.0점의 가산점을 얻은

김연아는 플라이닝스핀을 레벨 4로 들고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까지 완벽하게 뛰면서 총점 200점 돌파를 예상했다.

스파이럴 시퀀스까지 레벨4로 마친 김연아는 트리플 살코우를 뛰려고 했지만 도약이 좋지 않아 더블 살코우에 다운그레이드까지 되면서 0.24점밖에 얻지 못했다.

잠시 템포를 놓친 김연아는 예정됐던 플라이 콤비네이션 스텝을 시작하려다 도입 부분을 놓치면서 콤비네이션 스텝으로만 연기를 했다.

김연아는 마지막 과제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행했지만 결국 필수 과제인 플라이 콤비네이션 스텝을 빼먹은 결과가 되면서 마지막 과제 점수가 0점으로 처리돼 210점대 진입을 눈앞에서 놓쳤다.

반면 김연아의 우승을 다뤘던 ‘동갑내기 라이브’ 아사다 마오(일본)는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의 두 번째 점프가 다운되는 등 점프 난조를 보이며 총점 188.09점으로 4위에 그쳤다.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조 예니 로제트(캐나다, 191.29점)와 안도 미키(일본, 190.38점)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의 김나영은 총점 131.50점으로 17위에 오르면서 지난해 대회에서 거뒀던 19위보다 두 단계 올라섰다.

/연합뉴스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라 눈물” 어머니, 코치 오서, 안무가 율슨

■ 피겨퀸 김연아 인터뷰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전혀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치렀다”

생애 첫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정상에 오른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는 역시 준비된 챔피언이었다.

김연아는 29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치러진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점(207.71점)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 차례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부상 때문에 스스로도 결과를 확실할 수 있었고 3등 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이번 대회는 준비를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아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좋은 실점 경험을 치렀다”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라며 “연습을 하면서 우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긴장하지 않고 연습 때 하던 것처럼 연기했다”라고 우승 비결을 공개했다.

시상대에서 눈물을 보였던 김연아는 “그동안 시상대에 서서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꼭 참아왔다”라며 “하지만 오늘은 너무 기다렸던 자리여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연아는 경기장을 찾은 전설적인 피겨 선수들이 자신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준 것에 대해 “어렸을 때 봤던 챔피언들이 있는 자리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은퇴하더라도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신화 창조’ 이끈 지원군

김연아가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초로 200점대(207.71점)를 돌파하며 완벽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최상의 연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김연아 도우미’들의 드러나지 않는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의 사랑’이다.

김연아가 1996년 피겨스케이팅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피겨맘’으로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어머니 박미희(52) 씨는 이날 금메달을 통해 지난 13년간의 고생을 환산간에 잊게 됐다.

김연아는 주니어 시절 IMF를 거치고 계속되는 부상과 스케이트 부츠 문제로 고심하면서 한때 은퇴까지 생각했었지만 때로는 절친한 친구 같은 역할로 항상 곁에서 힘을 북돋워 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금메달의 밑바탕이 됐다.

김연아가 국제적인 선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해준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안무가 데이비드 율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훈련하기 어려운 국내 실정을 벗어나려고 캐나다 토론토를 전지훈련 기지로 삼은 김연아는 오서 코치의 지도와 율슨의 안무를 받아 2007-2008 시즌부터 그랑프리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그랑프리 파이널 2년 연속 우승,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동메달 두 번, 4대륙선수권대회 우승 등 놀라운 업적을 일궈냈다.

안무가 율슨은 지난 시즌 발달하고 청소년 김연아의 이미지를 이번 시즌 180도 바꿔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연합뉴스

대회명	총점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2009 세계선수권	207.71	76.12	131.59
2008 세계선수권	199.52	72.54	126.98
2007 세계선수권	191.75	65.34	126.41
2006 세계선수권	185.45	63.59	121.86
2005 세계선수권	181.31	59.85	121.46
2004 세계선수권	176.83	64.53	112.30
2003 세계선수권	177.20	63.56	113.64
2002 세계선수권	186.68	58.35	128.33
2001 세계선수권	186.24	71.25	115.00
2000 세계선수권	199.52	68.50	131.02